인문연구 제88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9. Vol. 88, No. 1, pp.1~28
http://dx.doi.org/10.21211/JHUM.88.1

1968년의 결정적 사건과 위기 요소의 초국적 순환*

신동규** · 이춘입*** · 하영준**** · 정대성*****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1968년 봄에서 '장기 68년'으로: 시간성의 재설정
3. 68운동의 새로운 공간: 트랜스애틀랜틱에서 제3세계로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1968년 봄 을 넘어 '장기 68년'이라는 관점에서 일국사의 한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8887)
본 논문은 68 공동학술대회 〈장기 68년과 저항의 동학 : 급진성의 순환에서 결정적 사건으로〉(영남대, 2019년 5월 31일~6월 1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 주저자, 창원대학교 사학과 부교수(연구책임자)
*** 공동저자, 동아대학교 사학과 강사(공동연구원)
**** 공동저자,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강사(공동연구원)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공동연구원)

를 극복하고 지구적, 초국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68운동의 역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마틴 루서 킹 암살, 3월 22일 운동, 콜럼비아 대학교 점거, 두취케 암살 미수 사건, 올더마스턴 행진, 바리케이트의 밤과 총파업, 미스 아메리카 반대 시위, 프라하의 봄 등 세계적 차원에서 68운동을 구성하는 사건의 이해를 위한 시공간의 재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들의 연쇄고리와 연쇄작용 속에서 '위기적 요소의 초국적 순환'을 설정하고, 설명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주제어: 68운동, 결정적 사건, 초국적 순환, 횡대서양, 장기 68

1. 들어가는 말

1968년 대학의 위기를 분석하기 위해 '결정적 사건(événement critique)'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것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였다.[1] '결정적 사건'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갈등이 폭발하여 사회적 위기가 만들어지는 전환점으로,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원인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형성되는 위기 국면(conjocture)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총체화 된 위기의 출현으로 정의되며, 사회의 각 영역에서 표출되지 않고 억눌렸던 불만이 일정 시점에 동시에 나타나면서 사회적 위기를 만들게 된다. 이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는 전환적인 사건이 '결정적 사건'이다. 이 결정적 사건은 이전까지 각각의 영역에서 사회적 갈등과 부조리를 조장했던 요인들이 한꺼번에 표출되어 단일한 사회적 요구와 전선을 만들어내는 '동시성의 효과(effet de synchronisation)'를 갖는다. 이

1) Pierre Bourdieu, *Homo accademicus,* Paris: Edition du minuit, 1984.

효과가 만들어내는 것은 담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이전과는 다른 층위의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혁명적 상황을 부르디외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결정적 순간(moment critique)'이라고 정의했다.[2)]

잉그리트 길혀-홀타이(Ingrid Gilcher-Holtey)는 논문 「바리케이트의 밤(La nuit des barricades)」에서 '결정적 사건'을 통해 68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자 했다.[3)] 길혀-홀타이는 1960년대에 곳곳에서 표출되기 시작한 갈등과 비판이 1968년 5월 일거에 폭발하는 사회 전체의 위기로 전환되는 시점을 '바리케이드의 밤'으로 특정했다. 즉 5월 10일 밤부터 소르본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라틴 지구에서 학생들과 경찰 사이에 발생한 격렬한 충돌을 '결정적 사건(événement critique)'으로 정의한 것이다.[4)] 1968년 5월 11일 새벽 5시 30분 공화국 기동대의 작전이 종료되고 남은 것은 188대에 이르는 불탄 자동차와 67명의 부상자, 그리고 440명의 연행자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바리케이드의 밤'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는 도화선이 되면서 대학의 문제가 공장의 문제와 함께 거리에서 논의되었다. 바리케이드의 밤은 적어도 '3월 22일 운동'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시작된 급진적 학생운동의 문제 제기를 사회적 의제의 중심으로 만들었다.[5)] 그리고 바리케이드의 저항은 공동기억(collective memory)을 상징하는 기호, 의미와 결합하기 시작했다. 길혀-홀타이가 지적하듯 1968년 5월 11일 '바리케이드의 밤'은 학생운동으로 표출

2) 결정적 사건에 대한 부르디외의 개념 설명은 신동규, 「1968년 저항 확산의 논리와 총파업: 정치적 측면의 복원과 '영광의 30년'의 위기」,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제39호, 2018, p. 23 참고.

3) Ingrid Gilcher-Holtey, "La nuit des barricades", *Sociétés & Représentation*, 4, 1997, pp. 167-172.

4) 길혀-홀타이의 연구와 '결정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신동규, 앞의 논문, p. 23.

5) 신동규, 위의 논문, p. 23.

된 대학의 위기가, 노동자들의 요구로 확산 중이던 공장의 위기와 결합하여 사회적 위기로 전환하는 변곡점이었다. 1968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의 문제제기를 철없는 부르주아 자식들의 일탈로 규정했던 프랑스 공산당(Parti Communist Français)과 노동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의 인식 변화가 불과 열흘 만에 일어났다. 바리케이드의 밤은 1789년 프랑스 혁명, 1830년 7월 혁명, 1832년 6월 봉기, 1848년 2월 혁명, 1871년 파리 꼬뮌으로 이어지는 혁명에서 세워진 바리케이드와 1945년 파리를 해방시킨 프랑스국내군(Forces Françaises de l'Intérieur)이 독일군에 저항하면서 세운 바리케이드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결정적 사건'은 계층별, 지역별, 계급별, 세대별로 분절되어 있는 갈등을 총체적인 사회 문제로 폭발시키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프랑스에서 바리케이트의 밤을 통해 폭발한 총체적인 위기를 읽어낼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1968년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의 연쇄를 통해 국내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저항 활동들이 국제적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목사의 암살, 컬럼비아 대학교 점거,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 반대 캠페인 등이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관계에서 동시성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사건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개별적인 부문 운동의 특징을 뚜렷이 가지며, 어느 하나가 미국 68운동을 좌지우지한 '결정적 사건'이라고 한정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디외와 길혀-홀타이의 개념을 확장하여 '결정적 사건의 연쇄', '복수의 결정적 사건들'로 칭할 수도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결정적 사건의 부재'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1968년에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건들만 하더라도 흑인 민권운동의 급진화, 새로운 급진적 여성운동의 등장, 신좌파 학생 운동의

과격함과 테러주의적 저항으로의 전환을 낳았다. 이러한 다층적인 '결정적 사건'의 연속적 흐름이 미국 국내 상황의 장기적인 변화를 뜻한다면, 그 중 마틴 루서 킹의 암살 사건은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과 결합해 미국의 경계를 넘어 지구적 층위에서 68운동의 '결정적 사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모방 범죄의 성격을 가지는 루디 두취케(Rudi Dutschke) 암살 시도와 독일 학생운동의 급진화 과정에서 총체적인 사회적 위기로의 확산 과정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마틴 루서 킹의 죽음이 가지는 당대의 지구사적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68운동으로 명명되는 1968년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은 1968년 1월 호치민이 이끈 북베트남의 '구정공세(Tet offensive)'와 몇 개월 후 마틴 루서 킹의 반전 연설에 뒤이은 암살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구정공세로 곤경에 처한 미군과 전쟁의 참상이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안방으로 중계되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대중적으로 가파르게 확산되었으며, 마틴 루서 킹의 추모 집회는 영국의 신좌파와 반핵운동 세력을 결집시키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였다. 호주에서도 민권운동가의 죽음이 원주민 문제를 새로운 사회의제로 부각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일국적 차원의 사건들이 국제적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으면서 일국사적 관점에서는 별달리 주목받지 못한 사건들이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띠며 중요하게 부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68운동에 대한 인식이 1968년의 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일국적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각국의 '결정적 사건'과 이 사건들이 연결하는 다양한 위기 요소들의 결합은 보다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동질적인 매커니즘을 가지고 작동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역동성은 1968년 이후에도 계속된다. 즉 '단기 1968년'이 아닌 '장기 1968년'에 주목할 때 이 운동의 전체

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즉 '결정적 사건'은 일국적 차원이 아닌 지구적 차원의 초국적 관계에서도 작동한다.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매개로 체 게바라(Che Guevara),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등의 트리컨티넨탈리즘(tricontinentalism)과 미국의 블랙파워(Black Power) 운동이 결합하면서 더욱 급진적인 저항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 이러한 초국적 저항 네트워크 속에서의 '결정적 사건'을 파악하여 국가별로 사회적 위기를 만들어내는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1968년 1월 30일 구정공세와 1968년 4월 4일 마틴 루서 킹 암살 사건으로 시작하여 일주일 뒤 독일의 두취케 암살 미수사건, 프랑스의 5월-6월 총파업, 일본의 도쿄대학 점거, 폴란드 프라하의 봄, 멕시코의 학생봉기와 올림픽 메달 수상식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사건 속에서 각국의 저항 운동과 체제 비판이 전지구적 성격의 문제로 전환되는 지점을 읽어낼 수 있다. 구정공세는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문제였으며, 마틴 루서 킹의 죽음은 이를 더 구체화 시키면서 각국 투쟁의 쟁점이 중첩되거나 단일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즉 1968년을 넘어 '장기 68년'이라는 관점에서 일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적, 초국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68운동의 역사서술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다. 즉 68운동의 이해를 위한 시공간의 재설정이 필요한 것이다.[6] 그리고 결정적 사건들의 연쇄고리와 연쇄작용 속에서 '위기적 요소의 초국적 순환'을 설정하고, 설명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

6) 시공간 재설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신동규, 정대성, 「1968년의 사건은 혁명인가? 문화혁명론과 세계혁명론을 넘어 새로운 연구를 위한 시론」, 『1968년: 저항과 체제 비판의 역동성』, 한울, 2019, pp. 20-24 참고.

2. 1968년 봄에서 '장기 68년'으로: 시간성의 재설정

1968년 4월 4일, 마틴 루서 킹의 죽음은 정확히 일 년 전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을 결합하려고 했던 그의 연설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뉴욕 할렘의 리버사이드 교회(Riverside Church)에서 행해진 킹의 반전 연설은 두 번째, 세 번째 베트남을 만들기 위해 볼리비아의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던 체 게바라의 반제국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마틴 루서 킹의 영향력은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Pueblo) 납치 사건이 또 다른 베트남을 만들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7] 베트남전 반대 열풍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우리나라도 사실 이 위기적 상황의 한복판에 있었다. 일명 '김신조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난 푸에블로호 사건은 호치민의 구정공세와 불과 일주일 차이가 날 뿐이었다.

1967년 미국 워싱턴의 펜타곤 앞에서 반전 시위대가 대치중이던 무장 헌병대의 총구에 꽃을 꽂는 광경과 구정공세 이후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등 각국에서 이어지는 반전운동의 연속성은 1968년이 만들어낸 담론과 실천이 보여주는 '초국적 순환'(trancnational circulation)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의 마틴 루서 킹 암살과 컬럼비아 대학교 점거 그리고 독일의 두취케 암살 시도 등은 프랑스의 '68년 5월'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일어났다. 프랑스 68년 5월의 전조였던 '3월 22일 운동'은 이 사건들과 함께 전세계적 차원의 베트남 전쟁 반대 연대시위의 맥락에서 등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의 관계는 1968년을 넘어서는 범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일국적 차원의 분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7) 신동규, 「1968년 반전, 반제국주의 패러독스: 평화, 국가, 시민」, 이주사학회 2019년 동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대구교대, 2019년 2월) 참고.

결국 1968년의 결정적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1968년을 벗어나는 타임라인 속에서 1968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1968년 급진화된 학생운동은 '장기 68년(long 68)'이라는 새로운 시간성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독일의 학생 운동은 이란의 팔라비 국왕방문 반대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베노 오네조르크(Benno Ohnesorg)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1967년 '6월 2일 사건'으로 일차적 폭발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독일 68운동의 폭발적 전환점인 제1차 '결정적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다.[8] 즉 이 사건을 통해 1960년대 중반 이후 서베를린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회비판 운동의 흐름이 새로운 변곡점에 이르렀다. 결국 6월 2일 사건은 회고적 관점에서 장기 전후 질서의 전환점이었다. 특히 전후 질서의 연장선에 있었던 1960년대의 중대한 변곡점이었다. 나아가 이 폭발력은 이듬해 제2차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1968년 4월 11일에 운동의 아이콘인 두취케 암살 기도 사건이었다. 영국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추모 집회가 열릴 때, 독일은 모방 범죄로 촉발된 '부활절 봉기' - 관점에 따라서는 그것을 '소요'라고 부르지만 -를 통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급진적이며 총체적인 격렬한 사회비판에 직면했다. 우리가 68운동을 1968년 봄으로 한정한다면 - 즉 '단기 68년'의 관점에서 본다면 - 두취케 사건은 적어도 독일에서는 68운동의 절정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절정은 독일 사회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었다.[9]

경찰이 학생을 사살하는 '6월 2일 사건'은 독일에서 온건한 개혁이 좌초하는 계기였으며, 이는 '장기 60년대'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장 속에서 68운동이 '결정적 사건'들을 겪으며

8) 신동규 · 정대성, 앞의 책, p. 23.
9) 신동규 · 정대성, 위의 책, p. 24.

새로운 폭발을 일으키며 상황을 더 첨예화하고 변혁의 동력을 배가하는 급진성을 확보했음을 뜻한다. 이 과정은 더 엄밀히 정리할 수 있다. 즉 우선 6월 2일 사건은 '장기 60년대'에 새로운 전환점과 변곡점을 부여하는, '장기 68운동'을 상징하는 결정적 사건으로 꼽는다. 그리고 1968년에 일어난 두취케 암살 기도 사건은 6월 2일 사건이 촉발한 '단기 68운동'의 결정적 사건으로 본다. 이런 관점 속에서만 '장기 60년대'의 의미를 인정하는 동시에, '장기 68운동'과 '단기 68운동'의 등장과 변환을 담은 전체 '68운동'의 함의와 파괴력을 놓치지 않은 역사적 해석의 지평이 열리는 것이다.

두취케 암살미수 사건 이후 파리에서의 연대시위는 사실 초국적 담론 형성의 장이자 초국적 연대의 출발점으로 기능했다. 약 천여 명의 청년들이 경찰로 철저히 둘러싸인 독일 대사관 앞에서 강력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비록 거의 사전 준비가 없이 즉흥적으로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여 명의 학생 시위대는 강력한 경찰부대에 용감히 맞섰다. 대사관 앞에서 시위대는 인터내셔널가와 함께 "루디 두취케" "SDS(독일사회주의학생연합)와 연대를", "SDS는 승리하리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한 "로자 룩셈부르크 1919, 루디 두취케 1968", "제국주의-테러-베트남-멤피스-베를린"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치켜 올렸다. 파리에서 시위에 참여한 독일 학생은 연대시위가 성공적이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독일사회주의학생연합에 보내 프랑스의 열기를 독일로 전달하였다.[10]

파리 학생들의 구호와 플래카드는 이 시위의 '연대성'과 '국제성'을 무엇보다 여실히 드러낸다. 우선 총격을 당한 두취케에 대한 당연한 연대를 넘어, 두취케가 소속된 독일 68운동의 핵심 조직인 SDS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이고 그 승리를 외친다. 나아가 시위

10) Liebe Genossen, ein Brief, 14. April 1968, aus Paris, in: APO-Archiv, SDS-BV, Post 1968.

대는 1919년 극우파 군대에 베를린에서 살해당한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와, 역시 극우 청년의 총에 쓰러진 두취케를 비견하며 두 사건의 같은 뿌리를 보여준다. 사건의 연쇄와 인과성을 나열하는 "제국주의-테러-베트남-멤피스-베를린" 플래카드는 더 명확한 의미를 내포한다. 즉 '제국주의'와 그에 기인한 '테러'와 '베트남'을 연결하며 제국주의가 베트남에서 자행하는 전쟁과 학살을 비판하고, 이런 테러가 결국 '멤피스'에서 마틴 루서 킹의 암살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런 폭력과 테러의 연쇄가 결국 두취케를 겨냥한 '베를린'의 암살기도와 맞물린다는 주장이었다. 시위대의 이런 인식은, 이미 당대에 68운동이 활동가들이 제국주의와 전쟁이 야기하는 테러와 폭력의 인과관계와 국제적 연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두취케 연대시위는 그런 맥락에 대한 이해 속에서 등장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임이 분명하다.

여하튼 이 연대시위는 특수경찰 부대인 공화국기동대와 벌어진 최초의 가두투쟁으로 연결되었다. 가두투쟁은 '상당히 격렬한 충돌' 양상을 보였다. 시위대에서도 몇몇 체포되었지만, 경찰 중에도 부상자가 발생하고 경찰차가 파손 당했다.[11] 또한 두 번째 파리 연대시위가 계획되었다. 중요한 대목은 그간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접촉조차 없던 여러 좌파 학생 정치조직들이 이를 위해 최초로 만났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좌파 학생 조직이 광범위한 연대를 실현하고 공동 시위에 처음으로 합의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12] 이렇게 실행된 두 번째 연대시위는 첫 번째 규모를 훌쩍 뛰

11) Ibid. 시위의 경과에 대해서는 다음도 참조. "Solidarität im Ausland", in: *LSZ* – Liberale Studentenzeitung, Heft 2, Mai/Juni 1968, S. 10; Grossmann and Negt, eds., *Die Aufstehung der Gewalt. Springerblockade und politische Reaktion in der Bundesrepublik,* Hamburg, 1968, p. 131.

12) *Ibid.*, p. 132. 이날 시위에 참가한 조직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Jeunesse Communiste Revolutionnaire*, *Jeunesse Communiste-Marxiste Leniniste*(maoistisch), *Fédération des Etudiants Revolutionnaire*, 3월 22일

어 넘어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다.

> 공감을 가진 프랑스인들이 부르는 '붉은 루디'와 SDS에 대한 연대 차원에서 4천명의 학생들이 라탱 지구로 행진한다. 그들은 플래카드에서 암살기도를 단죄하고 악셀 슈프링어 출판사의 신문들과, 독일 연방정부가 준비 중인 비상사태법 및 독일 연방총리 키징어를 비판한다. 괴테 문화원을 지나며 시위대는 유리창을 하나 깬다. 경찰은 지켜만 보았고 시위대가 경찰 차량의 유리창 하나를 박살내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13]

시위대는 당시 독일에서 베트남전과 더불어 운동의 과녁이었던, 비상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비상사태법'에 항의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의 권위주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나아가 보수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 및 국영방송 ORTF(Office de Radiodiffusion Télévision Française)의 보도행태를 놓고도 두취케 암살기도의 책임이 돌려진 독일 슈프링어 언론출판 그룹과 비교하였다. 4월 15일자 〈르 몽드(Le Monde)〉는 슈프링어사의 '신문독재'는 '배가된 저항'에 직면하고, 서베를린에서 '점거 정서'를 확산한데 책임이 있다고 논평하기에 이르렀다.[14] 이러한 상황은 두취케 암살기도 사건이 그간 교류가 없던 다양한 파리 좌파 학생조직들이 처음으로 만나고 공동 작업을 하는 계기

운동, *Studenten des Parti Socialiste Unifié, Union National des Etudiants de France* UNEF, *Comité Vietnam National*. 그밖에도 친 중국 조직 다수와 트로츠키주의 그룹들, 그리고 사회주의좌파 및 생디칼리스트 조직들도 시위에 가담했다. *Ibid*.

13) Wolfgang Kraushaar, *1968: Das Jahr, das alles verändert hat,* München, 1998, p. 112.

14) Ibid., p. 132f. 〈르몽드〉는 이렇게 강조했다. "슈프링어사의 영향력을 통해, 특히 그 정치적 테제와 사상의 위험스런 획일화를 통해 창출된 불만은 두취케 암살기도와 더불어 불 회기점에 이르렀다." *Ibid*., p. 133.

로 작용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즉 두취케 암살기도 사건으로 파리의 학생들을 일으켜 세운 독일의 저항운동이 파리의 뒤이은 '68년 5월'의 등장에 어떤 형태로건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15] 이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형성되고 영향을 주고받은 초국적 과정의 숨가쁜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실, 68운동의 국제적 연대와 연결되고, 그 접합점의 상징 인물이 다름 아닌 프랑스 68의 아이콘 다니엘 콘-벤디트(Danel Cohn-Bendit)이다. 콘-벤디트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베를린에서 프랑스로 망명한 유대인의 자식이자 독일 국적자로, 낭테르 3월 22일 운동의 핵심인물에서 프랑스 68운동 전체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급속히 운동의 대변자로 지명도가 상승하는 것과 나란히 우파나 보수 진영에서 '외국인'이자 '유대인'으로 공격받고 비방되었다. 또한 그는 이웃 독일에서 1967년 6월 2일 사건으로 운동이 폭발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양국을 오가며 저항운동의 접속과 연대의 일정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1968년 5월 콘-벤디트는 독일에서 SDS와의 회합 후 프랑스로의 입국을 금지 당한다. 물론 프랑스의 삼색기를 모독한 이유가 앞세워졌지만, 나치의 탄압을 피해 독일을 떠나야했던 유대인 부모를 둔 독일 국적의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콘-벤디트를 세계적인 68운동의 학생 지도자로 올려놓은 프랑스로 눈을 돌려보자. 프랑스의 68운동은 '1968년대(les années 1968)'라는 관점을 통해 급진성의 장기적 지속을 설명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베르나르 라크르와(Bernard Lacroix)였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1968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사회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급격한 사회변화에 뒤쳐진 19세기 방식의 교육

15) 프랑스의 68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Ingrid Gilcher-Holtey, "*Die Phantasie an die Macht" Mai 68 in Frankreich,* Frankfurt am Main, 1995.

체제 속에서 자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험적 시공간을 의미한다. 즉 '1968년대'는 사회적 위기가 폭발한 1968년에서 오일 파동으로 급진적 저항 운동이 소멸하기 시작하는 1974년 사이를 의미한다.[16] 이 시기에 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전후 세대의 경험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1968년대'라는 표현은 1960년대 전반기의 노동자 파업과 오일 파동 전까지 지속되는 68운동의 정치적 급진성을 연속된 사건으로 만들어 준다.[17]

1968년의 경험은 '자주경영(혹은 자주관리, autogestion)'의 모델로 불리는 1970년대의 '생산적인 파업(grève productive)'으로 연결된다. 1973년 시계를 제조하는 작은 기업인 립(Lip)에서 일어난 파업이 상징하는 노동자들의 행동 양식은 - 물론 1917년 러시아 혁명과 소비에트의 '노동자 관리(contrôle ouvrier)'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 직접적으로 1968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18] 이러한 경향은 1974년과 1975년 사이 무려 15개의 공장이 노동자들에 의해 점거되고 스스로 생산하는 파업의 물결까지 연결된다. 이러한 프랑스의 '1968년대'는 독일의 '장기 60년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1960년대의 장기적인 개혁의 흐름을 강조하기보다는 68운동의 폭발과 뒤이은 '정치적 급진성'의 진행을 긴 호흡 속에 같이 담아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프랑스의 '1968년대'는 독일의 '장기 60년대'보다는 오히려 '장기 68운동'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16) Bernard Lacroix, "Les jeunes et l'utopie: transformations sociales et représentations collectives dans la Frqnce des années 1968", Religion, societété et politique, mélages en hommage à Jacques Ellul, Paris, PUF, 1983, p. 734. ; 신동규, 앞의 논문, 9쪽.

17) 신동규, 위의 논문.

18) 신동규, 「대의민주주의의 모순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제70집, 2018, 58-59쪽.

3. 68운동의 새로운 공간: 트랜스애틀랜틱에서 제3세계로

한편 독일, 미국, 프랑스 68의 저항운동을 하나로 결집시킨 초국적 사건은 단연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이었다. 그리고 대서양 양안의 반전 물결에는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미국 정부에 대한 국내 여론의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68년 초 구정공세는 냉전 시대 초강대국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쟁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했다. 게다가 그런 전쟁에 수많은 미국 병사와 베트남인들이 죽어간다는 참혹한 사실은 더 이상 전쟁에 동의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부정적 분위기는 미국 내에서도 애국주의적 정서로 인해 전쟁에 동의했거나 아예 무관심하던 시민들조차 미국 정부의 베트남 전쟁 개입에 분명한 반대를 표하게 만들었다. 반대로 미국에 맞서 싸우는 아시아의 약소국 베트남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급격히 확산된 비판 여론에 힘입어 대대적인 반전운동의 폭넓은 확대와 초국적 연대 활동을 이끌었다. 베트남전 반대운동은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저항운동을 반전이라는 하나의 이슈로 결집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반전으로 하나가 된 저항 세력들은 기존의 저항운동을 더욱 과격하고 급진적인 양상으로 이끌면서 미국 내외의 여러 가지 사건과 연결되었다.[19]

비폭력적이고 통합주의적인 민권 운동을 주도하던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죽음도 암살 직전 반전의 목소리를 내면서 급진적인 견해를 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킹 목사의 죽음은 온건하고 평화적인 방법의 저항을 단숨에 종결시키고 미국

19) Afi-Odelia Scruggs, "Beyond Vietnam: The MLK Speech That Caused An Uproar," *USA Today,* January 13, 2017, 참고.

전역의 시위와 저항에서 폭력 소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환점이었다. 이는 킹 목사가 암살된 불과 한주 뒤 4월 11일 두취케에 대한 암살 시도가 독일 내 폭력 사태로 분출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미국 민주사회학생연합(SDS) 활동가 제프 존스(Jeff Jones)에 따르면, 킹과 두취케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번진 독일 우익 신문사 슈프링어에 대한 항의시위 물결이 다름 아닌 4월 23일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학생들의 대학 건물 점거 사건으로 직결되었다.

1968년 4월 23일부터 8일간 지속된 저항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할렘의 흑인들이 애용하는 모닝사이드 공원(Morningside Park)에 대학의 체육관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반발한 것이었다. 킹 목사 암살 직후에 할렘 흑인의 공유지를 강탈하는 것은 백인 학교의 인종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더구나 SDS는 컬럼비아 대학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국방분석연구소(IDA)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대학의 인종문제와 반전 이슈가 결합했다. 이 점거 사건으로 신좌파 SDS의 반전 운동과 흑인 민권 운동이 결합해 미국 68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형태를 띠었다.[20] 이렇듯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고리는 독일, 미국, 프랑스 등 각국의 사회 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미국 68운동에 대한 연구 또한 "장기 60년대(long Sixties)"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60년대'는 단순히 1960년부터 1969년까지의 산술적 시간 개념이 아니라 연구자나 연구의 초점에 따라 그 시작과 끝이 상이하다. 앞서 언급한 민권, 반전, 여성운동 등 다양한

---

20) 컬럼비아 대학 점거 사건에 대해서는 Paul Cronin, ed., *A Time to Stir: Columbia '6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 이춘입, 「Occupy Columbia! 컬럼비아 대학 점거 사건으로 다시 보는 '미국 68'」, 미국사학회, 『미국사연구』, 제49집, 2019. pp. 199-237 참고.

저항 운동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의 시기를 민권운동이 시작된 1955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종결된 1975년까지로 잡을 수 있다. 나아가 1960년대의 시기 내에서도 저항운동의 형태나 위상에 따라 다양한 시기적 구획과 접근이 가능하다.

보통은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의 판결로 '분리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이 깨지기 시작한 1954년과 1955년 로자 파크스(Rosa Parks)의 버스 보이콧에서 시작해 민권법과 투표권법의 통과된 1965년까지를 민권 운동의 시기로 본다. 1966년 스토클리 카마이클(Stokely Carmichael)의 연설부터 1975년 베트남 전쟁의 종결까지는 블랙파워 시대에 해당한다. 이러한 흑인 운동의 기준에서 전반은 '좋은 60년대(Good Sixties)', 후반은 '나쁜 60년대(Bad Sixties)'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접근이 지배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1968년은 '장기 68년'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나쁜 60년대'에 해당하는 과격하고 폭력적이며 급진적인 운동들의 향연이라고 간주된다.[21]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 보면, 미국의 68운동은 다양한 저항운동에 의한 다층적인 결정적 사건들의 연쇄 반응이었다. 먼저 1968년 4월 4일에 벌어진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암살 사건은 미국 1960년대의 절정의 시작점을 보여준다. 즉 이 사건은 이후 발생하는 68의 저항운동들의 연쇄적 확산과 폭발의 첫 번째 고리에 해당한다. 미국 SDS이나 블랙팬서당(Black Panther Party) 등

---

21) Sundiata K. Cha-Jua and Clarence E. Lang, "The 'Long Movement' as Vampire: Temporal and Spatial Fallacies in Recent Black Freedom Studies." *Journal of African American History* 92, 2, Spring 2007, p. 268 참고. 미국 68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대표적 신좌파 그룹 SDS에 대한 해석에도 적용된다. SDS의 전반기는 좋은 60년대에 해당하지만, 후반 SDS의 과격하 웨더맨(Weatherman)과 웨더 언더그라운드(Weather Underground)는 나쁜 60년대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Dan Berger, *Outlaws of America: The Weather Underground and the Politics of Solidarity,* San Francisco, AK Press, 2006, pp. 7-8.

여러 활동가들이 품은 평화적인 해결의 희망은 킹 암살 사건과 더불어 일거에 사라졌고 폭력적인 저항의 방식을 통해서만 사회 변혁이 가능하다는 신념이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인식 변화에 동반된 과격한 저항은 몇 주 후 4월 23일 뉴욕 컬럼비아 대학생들의 점거 사건에서 학내 문제가 반전이나 흑인 민권운동과 결합하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여세를 몰아 미국 전역의 급진적인 저항세력들은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거 결집해, "경찰 폭동(police riot)"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도한 경찰 진압 이후에 그에 대응한 전투적 가두투쟁으로 그 급진성을 실천하고 실현했다. 폭력과 체포로 얼룩진 대규모 유혈 전당대회 이후 정부는 "시카고 8인(Chicago 8)"이라고 불린 민권운동과 신좌파 등 다양한 저항세력의 지도자들을 내란죄로 기소하면서 미국 68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22] 여론이 폭력에 등을 돌리는 가운데 FBI의 비밀 첩보 활동 코인텔프로(COINTELPRO)와 같은 체제의 억압이 강화되자 운동세력들은 흩어지고 일부는 지하로 숨어들어 더욱 폭력적인 테러 활동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SDS의 과격파 웨더맨/웨더 언더그라운드와 블랙팬서당의 과격파로 구성된 흑인해방군(Black Liberation Army)이다.

유럽에서 적어도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던 1968년 봄의 역동성이 미국에서는 킹 목사의 죽음 이후 빠르게 변하면서 다층적인 '결정적 사건' - 혹은 '결정적 사건의 부재'- 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 와중에 9월 7일에 뉴저지 주 애틀랜틱시티(Atlantic City)에서 열린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를 반대한 급진적 여성들이 새로운 여성해방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미인 대회 반대시위는 시카고

22) SDS의 탐 헤이든(Tom Hayden), 이피의 애비 호프만(Abbie Hoffman), 블랙팬서당의 보비 씰(Bobby Seale) 등 다양한 그룹의 리더들이 '시카고 8인'으로 기소되었다.

전당대회 일주일 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반대 시위로 인해 미국 여성운동의 전위로 등장한 급진 페미니스트들에게도 반전은 중요한 이슈였다.

왜냐하면 미인대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 이미지가 여성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미스 아메리카는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고, 전쟁의 마스코트가 되며, 이는 여성을 상품으로 만드는 자본주의 등 모든 억압적 요소가 결합된 근본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전 저항의 열기는 이듬해 1969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뉴욕 근교에서 열린 우드스탁(Woodstock) 락 페스티벌로 이어졌다. 페스티벌의 모토가 "3일의 평화와 음악(3 Days of Peace & Music)"이었던 우드스탁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분노와 평화의 외침이 락 음악과 하나 되며, 68의 청년문화가 50만 명이 운집한 '우드스탁 공화국'으로 떠오르는 장관을 연출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장기 60년대'라는 관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영국의 68운동은 1950년대 신좌파의 등장과 핵무장반대운동, 그리고 1960년대 베트남 연대 캠페인과 영국 블랙파워 운동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장기 60년대' 속에서 일어났다.

영국 68운동은 1956년의 위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구 사회주의의 위기와 제3세계의 반식민주의 투쟁은 영국에서 신좌파가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였다.[23] 1956년 흐루쇼프의 스탈린 숭배 비판에 영향을 받고 소련군의 헝가리 봉기 진압과 이에 대응하는 기성 좌파의 무능력에 분노하면서 E. P 톰슨(E. P. Thompson)과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등은 영국 공산당의 영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결성하고 저널, 『뉴리즈너(New

23) Michael Kenny, *The First New Left: Britain Intellectuals After Stalin,* London, Lawrence & Wishart, 1995, pp. 10-53, Wade Matthews, *The New Left, National Identity, and the Break-up of Britain,* Leiden & Boston, Brill, 2013, pp. 1-25.

Reasoner)』를 발간하게 된다. 또한 같은 해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이집트 수에즈 운하 침공과 1957년 아프리카 가나의 독립으로 본격화된 영국령 아프리카와 카리브 식민지의 반식민주의 투쟁은 자메이카 출신의 옥스퍼드 대학원생인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을 편집장이 둔 저널, 『대학과 좌파평론(University and Left Review)』의 출간을 불러온다. 홀에게 1956년의 두 사건은 전후에도 여전히 서구의 제국주의가 건재하며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해도 제국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24] 1960년 이 두 저널은 『신좌파평론(New Left Review)』로 통합되면서 영국에서 노동당과 공산당과 같은 구좌파 조직과는 다른 새로운 이념을 추구하는 신좌파의 등장을 공식화하게 된다.

신좌파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반전 캠페인은 영국의 68운동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1957년 영국 핵무장반대캠페인(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ND)이 시작되었고, 1965년부터 베트남 전쟁 반대 평화 운동이 그 뒤를 잇게 된다. 이 운동에서 3세계의 반식민주의 투쟁이 미친 영향은 신좌파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핵무장반대캠페인〉은 반핵 운동의 수단으로써 간디의 비폭력저항운동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 중립주의(positive neutralism)를 통해 나토체제를 거부하고 비동맹운동의 제3세계주의에 접근하게 된다.[25] 또한 1966년 창출된 〈베트남연대캠페인(Vietnam Solidarity Campaign, VSC)〉을 주도했던 신좌파는 전쟁반대 평화주의를 넘어서 반제국주의와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승리를 지지했다. 이들은 체 게바라, 파농, 카브랄, 호치민 등 식민지

24) Stuart Hall, *Familiar Stranger: A Life Between Two Island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7, p. 243.

25) 원동필, 「직접행동위원회의 반핵운동과 그 의미, 1957-1961」,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제31집, 2014, p. 238, 원동필, 「전후 핵무장반대운동과 냉전적 사고의 균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제135호, 2017, p. 48.

해방 운동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제1세계의 자본주의 체제와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동시에 관료화되고 억압적인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했다.[26]

신좌파의 전망에서 제3세계는 단순히 자신의 혁명 판타지를 투영하기 위한 '프로젝션 스크린(Projection screen)'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제3세계 및 그 이주민들은 주체적 행위자로서 유럽 신좌파와 상호작용하면서 유럽 사회에 생산적 잠재력을 가져왔다.[27] 예를 들어 파키스탄 출신이지만 옥스퍼드 대학 대표였던 타리크 알리(Tariq Ali)는 최대 10만에 달하는 대중을 동원한 베트남연대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유럽 반전운동과 제3세계 반식민주의 투쟁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28] 이러한 영국 68운동과 제3세계의 상호작용은 반인종주의 투쟁의 새로운 성장에서 더욱 확장되었다.

1967년 영국에서 반인종주의 투쟁의 중요한 전환을 낳게 되는 블랙파워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조직화는 1967년 영국을 방문한 미국 블랙파워 운동의 주역 카마이클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간주된다. 그가 참여해서 기조연설을 한 1967년 '해방의 변증법 회의(Dialectics of Liberation conference)'는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29] 그러나 영국 블랙파워 운동의 등장과 발

---

26) Arif Dirik, "Foreword: The Third World in 1968", in *The Third World in the Global 1960s,* eds. Samantha Christiansen and Zachary A. Scarlett, New York & Oxford, Berghahn Books, 2013, p. vill.

27) Quinn Slobodian, *Foreign Front: Third World Politics in Sixties West Germany,*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2, pp. 5-12, Samantha Christiansen and Zachary A. Scarlett. "Introduction," in *The Third World in the Global 1960s,* pp. 32-33.

28) Tariq Ali, *Street Fighting Years: An Autobiography of the Sixties,* New York, Citadell Press, 1987.

29) R. E. R Bunce & Paul Field, "Obi B. Eguna, C. L. R. James and the British of Black Power in Britain: Black Radicalism in Britain, 1967-1972", *Twentieth Century British History,* 22.3, 2011, pp. 392-393. Anne-Marie Angelo, "The Black Panthers in London, 1967-1972, A

전에서 아프리카와 카리브의 영향도 매우 중요했다. 카마이클 자신이 영국령 카리브 출신 이주민이었다. 영국 블랙파워 운동의 발전 및 블랙팬서 조직의 결성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의 오비 에그뷰나(Obi B. Egbuna) 카리브 출신 C, L. R. 제임스(C. L. R James)와 다르커스 하우(Darcus Howe) 등은 중요한 기여를 했다.[30] 특히 제임스와 하우는 전위주의와 흑인 분리주의를 추구했던 미국과는 다르게 영국 블랙파워 운동이 자율주의와 정치적 흑인됨(political blackness)의 정치를 추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영국 68운동을 구성하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즉 신좌파의 결성과 핵무장 반대 캠페인의 등장, 그리고 베트남 연대 캠페인과 영국 블랙팬서 운동의 발전 등을 추적하는 '장기 68'의 시각은 이들 사건들의 '사건성'을 제3세계와의 트랜스내셔널한 상호 관계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흐름은 1968년 마틴 루서 킹의 죽음과 만난다. 10년을 맞이한 영국의 반핵 걷기대회는 마틴 루서 킹의 추모 행진이 되었다. 1968년 4월 15일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수 천 명의 시민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설교 녹음을 듣고 줄리 펠릭스(Julie Felix)가 킹 목사가 생전에 연설에서 외쳤던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We shall overcome)"를 불렀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마틴 루터 킹의 암살은 그의 민권운동에서 정치적 영감을 받았던 영국과 아일랜드의 신좌파 및 블랙파워 운동가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에 대한 전망은 우파에서 먼저 나왔다. 루터 킹 암살로 미국 대도시들에서 일어난 폭력적 소유 사태를 당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직접 지켜 본 영국 보수당 국회의

Diaspora Struggle Navigates the Black Atlantic," *Radical History Review*, 103, Winter, 2009, pp. 17-35.

30) R. E. R. Bunce and Paul Field, *Darcus Howe: A Political Biography,* London, Bloomsbury, 2014.

원, 에녹 파웰은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피의 강' 연설을 통해서 유색인 이주민이 영국 사회와 문화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31]

반면 멀리 떨어진 아시아 중국에서는 수 백 만의 중국 시위대 앞에서 마오쩌둥이 마틴 루터 킹의 암살과 함께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투쟁에 강력한 지지와 그리고 미 제국주의에 대항한 전 세계의 국제적 연대를 요구했다.[32] 이러한 사건의 연쇄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진장한 해방은 획득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비폭력 평화 투쟁 방식에서 전개된 북아일랜드의 민권투쟁과 영국 핵무장반대 캠페인, 그리고 반인종주의 투쟁의 종식과 그리고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운동의 시작을 의미했다.

영국의 집회 소식은 프랑스에 곧 전해졌다. 공산당의 기관지 〈뤼마니떼(Humanité)〉도 런던의 반전 시위에 관심을 가진 매체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저항의 초국적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네트워크가 신좌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또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암살 사건은 핵전쟁의 공포가 널리 퍼져있고, 베트남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전세계 곳곳에 퍼져있던 위기적 상황을 하나로 모아냈다. 그것은 반전, 평화를 위한 저항이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마틴 루서 킹 목사

---

31) John F. Lyons, *America in the British Imagination: 1945 to the Present,* Palgrave Macmillan, 2013, p. 85.

32) Mao Tse-Tung, "Statement, Chairma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an, in Support of the Afro-American Struggle Against Violent Repression, April 16, 1968," Freo Ho and Bill V. Mullen eds., *Afro-Asia: Revolutionary and Cultural Connections Between African Americans and Asian American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8, pp. 94-96.

의 죽음은 지구적 차원의 '결정적 사건'이었다.

4. 나가는 말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은 전 세계 68운동의 주요한 공통분모였다. 그렇다면 1968년에 이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각국의 역동성은 어떻게 교차하고 연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결국 유럽 68운동의 양대산맥인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를 상호 교차적으로 분석하고 미국과의 상호관계가 펼쳐지는 시공을 연결해서 고찰하는 동시에, 영국과 그 식민지 사이의 상호성을 분석하는 일은 유럽적 차원을 넘어 트랜스 애틀랜틱적인 68운동과 전 지구적인 68운동의 이해와 해명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정지작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본고에서 지향하는 68운동의 초국적 맥락은 '바리케이드의 밤' 등을 부르디외적 의미의 결정적 사건으로 분석한 길혀-홀타이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되, 시간적으로 1968년 봄과 지리적으로 일국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그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세계화된 네트워크 속에서 결정적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는 68운동을 '장기 60년대와 '1968년대'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써 '장기 68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성'을 재구축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구적 차원에서 68운동의 결정적 사건이 무엇인가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1968년 1월의 구정공세와 4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죽음이 68운동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일어났던 여러 나라의 수많은 활동가들을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분명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지구적 차원의 결정적 사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양분하고 있었던 냉전의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형성된 '사회질서의 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운

동은 양 체제를 뒤흔드는 아래로부터의 직접적인 사회질서 전복에 실패하고 저항의 초국적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크게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익히 알려졌다. 이것은 이 운동을 '문화혁명'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68운동의 사건과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초국적 저항의 네트워크'가 과연 냉전의 지형에 어떤 균열을 내었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이고 열려 있으며, 앞으로 풀어가야 하는 미래형의 과제에 속한다. 68운동이 고전적인, 정권과 체제 전복으로 각인된 혁명과는 다른 지도를 그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하튼 우리는 역사적 사건의 실체와 해석을 구분해야 하며, 68운동에서 '혁명적인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 68운동이 구성하는 사건들이 냉전의 지형을 뒤흔들어 데탕트의 도래를 비롯한 세계적인 정치의 물결을 바꾸었다면, 그 변화가 우리 삶의 지형을 뒤흔들어 권위와 위계를 타파하며 생활 속의 정치참여를 정치적 삶의 의제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68운동을 - 해석의 차원에서 - '혁명'이라 부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어쩌면 그 혁명은 체제와 정권 전복 후 결국 불가역하지 못한 역사속의 혁명과 본질의 궤를 달리하는 '미래형의 혁명'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68운동 속에서 '혁명적인 것들'을 발굴하고 채굴해야 한다. 21세기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포퓰리즘의 권위주의가 득세하는 불안의 시대에 다름 아닌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하여, 다름 아닌 - 루소(Jean-Jacques Rousseau)가 정의하는 - '진정한 민주주의(véritable démocratie)'를 위하여,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혁명'을 위하여! 불가역적인 '미래의 혁명'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질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참고문헌

1. 기본자료

Liebe Genossen, ein Brief, 14. April 1968, aus Paris, in: APO-Archiv, SDS-BV, Post 1968.

USA Today, January 13, 2017

2. 논문 및 단행본

신동규, 「1968년 저항 확산의 논리와 총파업: 정치적 측면의 복원과 '영광의 30년'의 위기」,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제39호, 2018.

신동규, 「대의민주주의의 모순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제70집, 2018.

신동규, 이춘입 역음, 문화사학회 기획, 『1968년, 저항과 체제 비판의 역동성』, 한울, 2019.

신동규, 「1968년 반전, 반제국주의 패러독스: 평화, 국가, 시민」, 이주사학회 2019년 동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대구교대, 2019년 2월).

원동필, 「직접행동위원회의 반핵운동과 그 의미, 1957-1961」,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제31집, 2014.

원동필, 「전후 핵무장반대운동과 냉전적 사고의 균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제135호, 2017.

이춘입, 「Occupy Columbia! 컬럼비아 대학 점거 사건으로 다시 보는 '미국 68'」, 미국사학회, 『미국사연구』, 제49집, 2019.

Angelo Anne-Marie, "The Black Panthers in London, 1967-1972, A Diaspora Struggle Navigates the Black Atlantic," *Radical History Review*, 103, Winter, 2009.

Bourdieu Pierre, *Homo accademicus,* Paris: Edition du minuit, 1984.

Cronin Paul, ed., *A Time to Stir: Columbia '6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Bunce R. E. R & Field Paul, "Obi B. Eguna, C. L. R. James and the British of Black Power in Britain: Black Radicalism in Britain, 1967-1972," *Twentieth Century British History,* 22.3, 2011.

Bunce R. E. R. and Field Paul, *Darcus Howe: A Political Biography,* London, Bloomsbury, 2014.

Dan Berger, *Outlaws of America: The Weather Underground and the Politics of Solidarity,* San Francisco, AK Press, 2006.

Christiansen Samantha and Scarlett Zachary A.,*The Third World in the Global 1960s,* eds. New York & Oxford, Berghahn Books, 2013.

Gilcher-Holtey Ingrid, "*Die Phantasie an die Macht*" *Mai 68 in Frankreich,* Frankfurt am Main, 1995.

Gilcher-Holtey Ingrid, "La nuit des barricades", *Sociétés & Représentation*, 4, 1997.

Grossmann and Negt, eds., *Die Aufstehung der Gewalt. Springerblockade und politische Reaktion in der Bundesrepublik,* Hamburg, 1968.

Hall Stuart, *Familiar Stranger: A Life Between Two Island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7.

Ho Freo andMullen Bill V. eds., *Afro-Asia: Revolutionary and Cultural Connections Between African Americans and Asian American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8.

Kenny Michael, *The First New Left: Britain Intellectuals After Stalin*, London, Lawrence & Wishart, 1995.

Kraushaar Wolfgang , *1968: Das Jahr, das alles verändert hat,* München, 1998.

Lacroix Bernard, "Les jeunes et l'utopie: transformations sociales et représentations collectives dans la Frqnce des années 1968", Religion, société et politique, mélages en hommage à Jacques Ellul, Paris, PUF, 1983.

Lyons John F., *America in the British Imagination: 1945 to the Present,* Palgrave Macmillan, 2013.

Matthews Wade, *The New Left, National Identity, and the Break-up of Britain,* Leiden · Boston, Brill, 2013.

Slobodian Quinn, *Foreign Front: Third World Politics in Sixties West Germany,*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2.

Sundiata K. Cha-Jua and Clarence E. Lang, "The 'Long Movement' as Vampire: Temporal and Spatial Fallacies in Recent Black Freedom Studies." *Journal of African American History* 92, 2, Spring 2007.

Tariq Ali, *Street Fighting Years: An Autobiography of the Sixties,* New York: Citadell Press, 1987.

(투고일: 2018. 8. 15 심사완료일: 2018. 9. 20. 게재확정일: 2018. 9. 23)

신동규
소 속: 창원대학교 사학과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전자우편: shindongkyu@changwon.ac.kr

이춘입
소 속: 동아대학교 사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사학과
전자우편: choonib@gmail.com

하영준
소 속: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전자우편: hayoungiun@hanafos.com

정대성
소 속: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전자우편: jungsun@pusan.ac.kr

[Abstract]

Critical Event and Transnational Circulation of Crisis-elements in 1968

Shin, Dong-kyu · Lee, Choon-ib · Ha, Young-jun · Jung, Dae-sung

In the perspective of 'Long 68' beyond the scope of Spring 1968, We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try a broad understanding of Movement 68 by considering the Grlobal and Transnational relationship of historical events that occurred in 1968. We need to reestablish the Space-time range to understand 68 movement composed by differnet events at a global level such as Anti-Vietnam War Campaign, Assassination of Martin Luther King, Dutschke assassination attempt, Columbia University protests, Aldermaston Marches, Night of Barricade and general strikes, Miss America Protest etc. In the series of Critical events and its domino effect, we can define and explain the Transnational Circulation of Crisis-elements in 1968.

Key words: 68 movement, critical event, transnational circulation, transatlantic, long 68